

하느님께서 우리과 함께 계시다

(마태 1,23)

우리 모두
주님을 마음 안에 포시고,
이웃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면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도록 합시다.
그러면 세상에 가득 찬
고통이 줄어들고
그 자리에는 기쁨과 평화가
들어서기
시작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참 빛으로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빕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기에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은총과 평화를 청하게 됩니다. 곤경 속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성탄이 희망과 위로의 빛으로 다가오기를 기원합니다. 북녘 신자들도 신앙의 자유를 얻어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될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환자들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며 많은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생활고에 시달려 고통의 나락으로 내몰리는 많은 서민들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소외받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형제적 사랑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사회적·경제적 상황도 많이 힘들고 혼란스러워서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변이 어두워질수록 위로부터 오는 빛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신앙인은 어려울 때일수록 하느님께 의탁하며 그분께 희망을 두어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고난을 겪을 때마다 하느님께 눈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하느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구원 업적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분께서 빨리 ‘하늘을 찢고 내려오셔서’(이사 63,19) 자신들을 비참한 상태에서 구해주시기를 간절히 청하셨습니다. 자비하신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백성의 간절한 청원에 응답하시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